

중세 기독교 사상에서의 유한과 무한

-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

서경대학교 수리정보통계학부 안가경
한양대학교 응용수학과 임종록
한정순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ree kinds of theory on the origin of the world, the formation theory, the emanation theory and the creation of nothing. Especially through Augustinus, great scholar of patristic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d and the creature was shown with the concept of the infinity and the finite.

0. 서론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존재란 일반적으로 형상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존재로서 이해되는 시대였기에 무한이란 그와 같은 형상을 취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 이하의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무한이란 한정을 지니고 있는 유한 이하의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상은 고대 그리스 말기부터 중세, 근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은 변형을 보았다.

고대 말기에 사색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것이 신이었으며 이 신의 피조물인 세계와의 관계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신은 무한한 존재이고 세계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중세까지 거의 지배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적이었던 종교의 시대였으며 따라서 교부철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주로 교부 철학 안에서 진행되었던 무한에 대한 사상적 융합과 변질의 과정은 중세 최대의 사상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 354-430)에 이르러 무한성은 신의 완전성으로 표현되었고 그 이후론 신의 무한성에 관해서는 의심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말과 5세기 초, 즉 교부철학시대 말기중 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상은 당대뿐 아니라 후대의 서양 전통사상

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1.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우리는 철학과 신학사상에 공헌한 위대한 사상가들을 대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칸트(Kant), 헤겔(Hegel)과 같은 시스템적인 학문을 완성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소크라테스(Socrates), 플라톤(Plato), 파스칼(Pascal),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와 같은 사람들, 즉 위대한 학문의 자극자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자에 속한 사상가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자로서 교리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철학자로서도 기독교 철학의 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독교 역사 인식체계를 마련하여 이후 근대의 진보 및 목적론적 사관의 기초를 만들어 냈으므로 역사철학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다.

중세문명은 어느 교부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중세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루터(Luther)나 칼빈(Calvin)의 신학이론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공헌은 근대를 거쳐 현대에도 면밀히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파스칼과 뉴만(Newman)이 그렇고 현대에 들어서는 마리탱(Maritain), 니버(Niebuhr), 티리히(Tillich)와 바르트(Barth)가 그 맥을 잇고 있다. 화이트헤드(Whitehead)가 말한 것처럼 서구 철학이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라고 본다면 서구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학분야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신(God)의 이해에 대한 그의 융통성이고 다음으로 그의 인식론이 갖는 합리성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현실적 관심을 통해 신학적 이해에 도달하는 종합성이라 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믿음을 증언하는데 언제나 최종적인 완성을 피하는 열려있는 사고를 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조명해 주기는 하지만 신은 무한한(infinite)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정된 마음(finite mind)을 가지고 그 전체를 인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의 무한성과 신비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새로운 성찰을 위한 원천이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의 특징 중 첫 번째는 그의 사상이 행복의 추구에서 시작하고 또한 그것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내면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은총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가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세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다. 첫째는 형성설이고 둘째는 유출설이고 셋째는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형성설과 유출설은 헬라 문화권의 세계에서는 잘 알려진 이론이다. 형성설은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이원론(二元論)적인 설명으로서 그 대표자는 플라톤이었고 유출설은 일원론(一元論)적 이론으로서 그 대표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플로티누스(Plotinus)이었다.

고대에는 이 이원론이 거의 신화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중동지방에 널리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신화에 의하면 질서의 신이 어떤 괴물(혼돈의 원리)을 이김으로써 세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론적 신화를 받아들여 그것에 철학적인 해석을 가한 것이 플라톤인데 그의 대화편 '티메우스'란 책에서 태초에 데미오고스(Demiogon)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본래부터 존재해 온 질료를 영원한 "이데아"에 의하여 가능한 한 좋게 형성한 것이 이 세계라고 쓰여 있다. 이 형성설에는 인간이 무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대개 세 가지 요소가 세계 창조에 관여되고 있다. 그것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형상이며, 영원부터 존재한 질료이고, 이 양자를 연결하여 무엇이 되게 형성한 데미오고스이다. 플라톤의 이론은 철저히 이원론적이다. 한편으로는 이데아를 품고 있는 데미오고스라는 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형성의 재료인 질료가 있게 된다. 질료란 그 자체는 비합리적이고 무제한 적이어서 무형적이고 인식 될 수 없는 어떤 것, 즉 무한한 것이다. 이 질료는 영원부터 존재해 온 존재론적 원리로서 신의 창조활동에 도움이 되는 조건이지만 동시에 저항하고 제어하는 요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신은 그의 창조활동에서 질료에 의하여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다.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은 일자(一者)는 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단일자이고 만물이 일자에게서 유출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어떤 면에서 그 일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제일 먼저 일자에게서 유출된 존재는 정신(nous)이라고 한다. 이 정신은 일자와 달라서 인식의 주체인 동시에 개체가 된다고 한다. 정신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점에서 정신은 일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이다. 다음으로 이 정신에서 혼이 유출되어 나온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은 정신을 반영하는 영상이 되고 정신은 일자를 반영하는 영상이 되기도 하여 이 정신과 혼은 일자와 같이 신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이론은 존재의 기원은 창조가 아니고 필연적 유출이며, 유출된 존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주는 영원한 것이며,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다는 것이다.

플로티누스 이후 그리스 교부들은 철학과 신학의 영역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예지 또는 철학으로 보려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플라톤을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보려는 것도 일반적인 자세였고 신플라톤주의는 그리스도교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신플라톤주의를 창시한 플로티누스에게서 영혼이 물질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었다는 사유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물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하여 그의 인고의 산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적인 이원론(형성설)과 플로티누스의 일원론(유출설)을 "그들(괴조물)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당신이 창조하시지 않은 어떤 다른 질료도 아닙니다."라고 비판하고 무로부터의 창조를 유일하게 주장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무로부터의 창조의 개념은 하나님만의 절대주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상을 하나님과 구별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이 세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적인 요소를 지닌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어떤 질료로부터 만들어 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 세계는 하나님처럼 영원하다던가 혹은 시간이 영원히 반복한다는 것도 부정한다. 이것은 곧 창조된 세계가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뜻한다.

2. 수와 무한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수론을 이용했다. 그는 수를 질서와 형식, 아름다움과 완전성, 비율과 법칙의 원리로 간주하고 있다. 이데아들은 영원한 수인 반면에 물체들을 시간적인 수로서 시간 속에 나타나고 있다. 수학적 수가 1에서 시작하여 그 자체가 완전한 정수인 수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자들의 위계는 최고의 일자,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며, 일자인 하나님은 존재자를 생겨나게 하고 여러 가지의 차등을 지닌 완전한 통일체 가운데 반영되어 있다. 수학은 배우는 사람의 기호나 능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정답이나 원리는 변질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3에다 7을 더하면 10이 되는 것은 한결같은 진리이다. 또 한 가지 1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1이라는 숫자가 감각으로 지각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1로 인식하고 1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이미 1의 개념을 갖고 1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능력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인식 불가능하다는 추론에 이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상의 수학적 논리를 지혜에 적용시키고 있다.

신을 처음으로 무한이라고 부른 사람은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필론(Philon)이라고 한다. 필론은 “신은 아포이오스(apoios)”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성질도 신의 숭고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론으로 인하여 유한이하의 것으로 여겨지던 무한이 존재이상인 신의 속성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신에 관한 무한성을 더욱 명확히 한 사람은 플로티누스였다. 플로티누스는 기독교 철학을 받아들여 유한하고 가시적인 세계 속에 무한하고 나타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유출설에서 잘 알 수 있다. 만물은 일자에게서 유출되었으므로 일자는 만물의 원인이고 어떠한 한성도 줄 수 없는 절대 무한자이다. 이렇게 신이 만물의 근원으로 되면서 신의 무한성 속에 존재하는 초월자로서의 존재로서 인간의 정신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즉 어떤 대상이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무한의 내용도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했다. 수와 같이 확장해 나 갈 수 있는 무한이 한없이 확대해 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완전한 대상으로서의 무한으로 바뀐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세계는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유한하고 가변적이고 시간적인 존재이지만,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은 불변하고 영원한 무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주를 영원한 것 또는 신적인 것으로 보는 헬라 사상을 배격하고

있다.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시작도 하지 않았고 또한 끝도 없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등에게서도 나타났다. 또한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가능성을 말했고 현대 과정주의 철학도 무한한 세계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피조물인 세계를 영원 또는 무한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영원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영원 불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계 창조라는 새로운 사건을 왜 만드셨나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해답은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의 무한성에 있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 절대 불변성에 있다는 것이다.

신에 관해서 말하는 무한이라는 속성은 정신적인 완전성을 뜻하며 이것은 질적인 무한성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이세상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양적인 무한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속성으로서의 무한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사고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간의식 안으로 들여오는 노력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해서 신은 무한이고 피조물인 세계는 유한하다는 기독교의 사상의 확립되었다.

3. 결론

형성설이든 유출설이든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무로부터의 창조론이든 모두 자기 안에 이론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신의 영원성, 무한성은 시간의 개념에 의한 무한성이다. 즉 하나님은 세계를 시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과 함께 창조 하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연히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초월적인 영원자이고 시간과 함께 창조된 세상은 영원하다던가 혹은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권능에 대한 표현에서 나온 것일 것으로 생각되며 시간의 존재에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피조물에게는 무한한, 영원한 대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 문헌

1. 김용운 · 김용국, 세계수학문화사, 전파과학사, 1990
2. 램브레히트/김태길 · 윤명로 · 최명관 옮김, 서양과학사, 을유문화사, 1992
3. 문화사교재편찬위원회, 세계문화사, 형설출판사, 1996
4. 브린튼, 세계문화사, 을유출판사, 1987

5. 이석무, 아우구스티누스, 민음사, 1995
6. 질송 /김기찬 옮김, 중세 철학사, 현대지성사, 1997
7. Eves/허민·오혜영 옮김, 수학의 위대한 순간들, 경문사, 1994
8. Eves/이우영·신항균 옮김, 수학사, 경문사, 1995
9. Long, 헬레니즘 철학, 서광사, 2000
10. Ricken, 고대 그리스 철학, 서광사, 2000